

호남, 신에너지 · 친환경소재 메카로

지경부, 2년간 매출 3545억원 올려 ... 4개 프로젝트에 1808억원 지원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호남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소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호남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화학기업 등 24곳이 2년간 일자리 1837개를 창출하고, 매출 3545억원, 수출 1억2000만달러, 특허출원 및 등록 150건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 산업을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선도사업을 통해 광 기반 부품소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태양광, 풍력 등 4개 프로젝트에 총 180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광 기반 부품소재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프로젝트는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경부는 호남권 선도산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6월2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OCI가 개발한 폴리실리콘(Polysilicone), 두산중공업의 풍력발전시스템, LS엠트론의 전기구동 트럭 등 130개 우수상품이 전시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9>